

경제

광주·전남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상태 물어보니

10곳중 6곳 “어렵다” 9곳은 “위기”

46% “매출 20% 이상 줄어” 14% “대응책 없어 적자 감수”

삼성전자·기아자동차 등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00개사 중 90개사가 경기 상황이 “위기”(심각한 위기 31.0%, 위기 59.1%)라고 응답했다.

유에 대해 76.7%가 ‘내수경기 침체’를 꼽았다. ‘환율·고유가 등 대외경제 환경 악화’(28.6%), ‘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18.9)도 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경영상태와 관련해서는 63.8%가 ‘어렵다’(매우 어렵다 6.2%, 어렵다 57.7%)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지난해 2분기 39.3%, 3분기 44.5%, 4분기 53.0%, 올해 1분기 59.3% 등 지속적으로 증가,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경영상태가 어려운 이유를 ‘대기업 납품물량 감소’(57.7%), ‘내수경기 침체’(39.4%),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구인난’(31.0%), ‘일

방적 단가인하 요구’(18.3%) 등을 꼽았다.

또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의 경영상태를 보면 10곳 중 9곳(91.6%)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이 중 46.5%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했고, 2.9%는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협력업체들은 이처럼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68.7%), ‘거래처 다변화’(52.5%)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4.1%는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적자운영을 감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영으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60.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지역 내 대기업 유치와 지원 확대’(52.6%), ‘자동차·가전 중심의 지역산업 다변화’(23.7%), ‘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15.5%) 등으로 나타났다.

강영태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그리스·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불황으로 일부 대기업의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협력사들이 경영여로를 겪고 있다”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여건 조성, 납품단가 적정이 윤 보장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또 “일부 대기업의 파업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새내기 행원 33명 임행식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2개월동안 연수과정을 마친 33명의 새내기 행원을 대상으로 신입행원 임행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서민금융 전용창구’ 운영점 개설 운영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서민금융 활성화 및 공생경영 실천을 위해 KJB 새희망플러스 대출, KJB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4종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전담창구를 신설 운영한다.

광주은행 서민금융 전담창구는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 담당자 1명을 정하고 담당자에 서민금융상품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표상품으로는 KJ새희망플러스대출, KJB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 KJB청년·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KJB바

퀴드림론이 있다. 새희망플러스대출은 대표적 서민금융 지원 상품으로 7월말 기준 연 7.9%~13.95% 금리로 전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특히 올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새희망플러스대출 고객에게 1% 금리 우대혜택을 주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보증서를 담보로 금리는 연5.

28%부터 이용할 수 있다.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은 저축은행 또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연20%이상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과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바퀴드림론’은 제2금융권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지원 상품으로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전담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전기요금 4.9% 인상 가닥

정부안 받아들여...오늘 이사회서 결정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을 안건으로 3일 오전 한국전력 본사 10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연다.

한전의 한 이사는 “정부가 바라는(인상) 수준이 5% 미만이라서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4.9% 인상하면 올해 한전의 순손실은 지난해(3조5000억원)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겨울에 전기요금을 다시 조정하는 계획을 정부에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연료비연동제 기준 변경을 이면에

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을 의결할 때는 부족분 충당을 목적으로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한전은 이번에 요금을 상향 조정해도 여전히 요금 수준이 원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름철 수요 조절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을 1% 인상하면 전력 수요가 17만kW 줄어든다. 결국 이번 인상으로 원전 1기에 해당하는 85만kW 정도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게 한전의 추산이다.

한전의 또 다른 이사는 “이번 요금 조정은 인상 자체보다는 수급 조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가정용, 주택용, 산업용의 구분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서 4월과 7월에 13.1%와 10.7% 인상안을 의결해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산업계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철스

Table with financial data: 코스피지수 1,869.40 (-10.53), 코스닥지수 466.63 (-1.90), 금리 (국고채 3년) 2.79% (-0.04), 원·달러 환율 1,131.70원 (+5.20)

백화점 전년비 18% 줄고 슈퍼마켓 41% 늘어

6월 카드 승인 실적...대형할인점도 감소세

경기 침체로 고가품 구매가 줄어들면서 백화점이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소형 슈퍼마켓은 대형할인점의 영업 규제 영향으로 호황을 맞고 있다.

2일 여신금융협회의 올해 상반기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백화점의 카드 승인 실적은 작년 같은 달보다 18.3% 급감했다. 5월에 19.

5% 감소한 데 이은 것이다.

협회는 “고가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백화점은 소비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카드 승인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할인점도 6월 승인 실적이 작년 동월보다 1.1% 늘었는데 그쳤다. 종전에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0%대 증가세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가 뚜렷하다. /\*연철스

이에 반해 슈퍼마켓은 41.1%나 급증했다. 협회는 소량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문화 확산과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반사 이익으로 슈퍼마켓의 카드 승인 실적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공과금 서비스는 제세공과금의 카드 납부가 활성화되면서 지난 6월에 전년 동월보다 145.8%나 급증했다. 상반기 카드 승인 실적은 25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 늘어난 데 그쳤다. /\*연철스

광주·전남 7월 주식거래 13% 늘어

2조4108억원, 6월보다 2822억원 증가

7월 중 광주·전남 지역의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2012년 7월 광주·전남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은 5억8129만주로 전월보다 13.13%(6747만주)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2조4108억원으로 전월보다 13.26%(2822억원) 늘어났다. 순매수량은 338만주로 전월의 432만주보다 94만주가 줄어들었다.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 2.47%, 거래대금 1.69%를 각각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거래량 상위 종

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미래산업, 대영포장, SH에너지화학, KODEX레버리지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은 국제디와이, 지앤피, 일경산업개발, 알에스넷, 이화전기 등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KODEX레버리지, KODEX인버스, SK하이닉스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안철수연구소, 셀트리온, 지앤피, 메디포스트, 국제디와이 등 순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50만원~ 특가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2012년도 야간반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모집 자격증반 교육일정: 2012년 8월 초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18:00-22:50 교육비: 150,000원 모집인원: 40명(★ 교육비 등록순으로 선착순 마감)